

국내 기업이익, 이제는 동조화의 영역으로

2023/ 05/ 09

Strategist

곽병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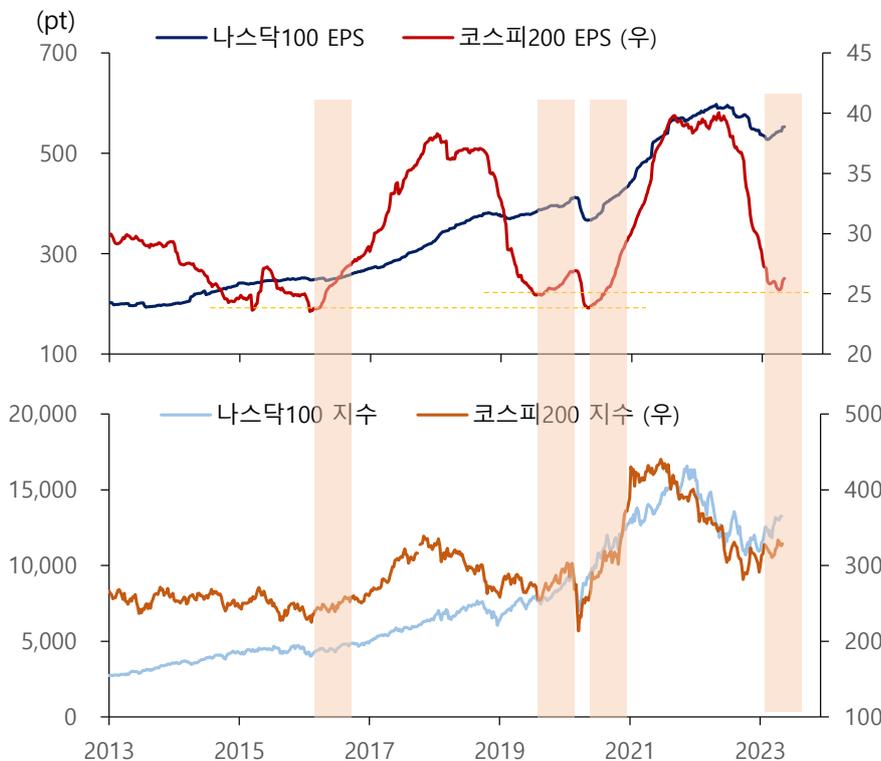
(2009-7148)

brkwak@leading.co.kr

■ 국내 기업이익의 바닥통과 가능성과 외국인수급 예상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절정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가시성을 재확인한 가운데, 1 분기 어닝시즌을 계기로 나스닥 100 기업군은 사실상 감익사이클에 벗어나 이익 전망의 바닥통과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과거 빅테크 기업의 바닥통과 이후 증익사이클 진입 시기는 국내 기업이익 전망에도 우호적이었고, 이미 국내 이익사이클은 역사적 저점수준까지 충분한 하향조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향후 빅테크 기업들과의 이익 동조화 가능성은 커진 것으로 판단함.

<그림 1> 빅테크의 실적전망 개선은 국내기업에도 동조화 강화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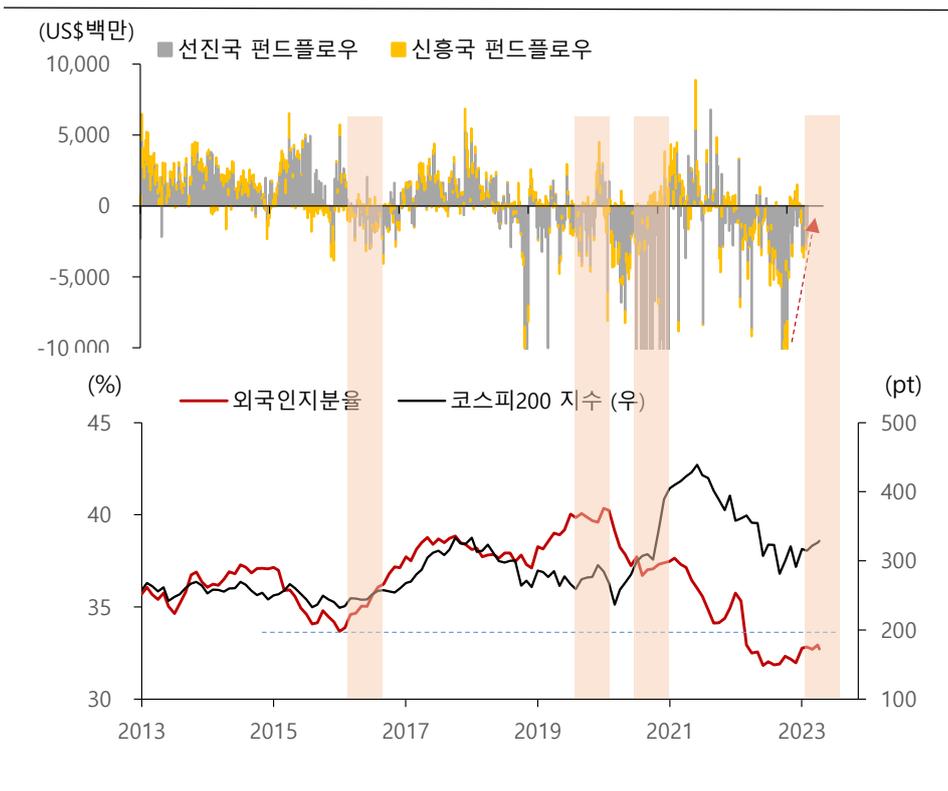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국내외 이익전망 동조화 회복국면은 펀더멘털 상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쟁을 완화시키며 주가사이클 상 초기회복을 중기까지 연장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음.

글로벌 수급변수 역시 글로벌 펀드플로우의 순유출이 기존보다 경감되거나, 신흥국 펀드에도 일정부분 자금배분이 이뤄지면서 외국인수급 개선을 유도했던 것으로 파악됨. 국내증시의 외국인지분율은 2022년 중 10년래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최근 점차적인 개선 가능성을 타진 중인데, 과거 이익동조화 국면을 살펴 보면 외국인지분율의 뚜렷한 개선흐름이 상당기간 진행된 바 있음

<그림 2> 글로벌 펀드플로우 및 국내증시의 외국인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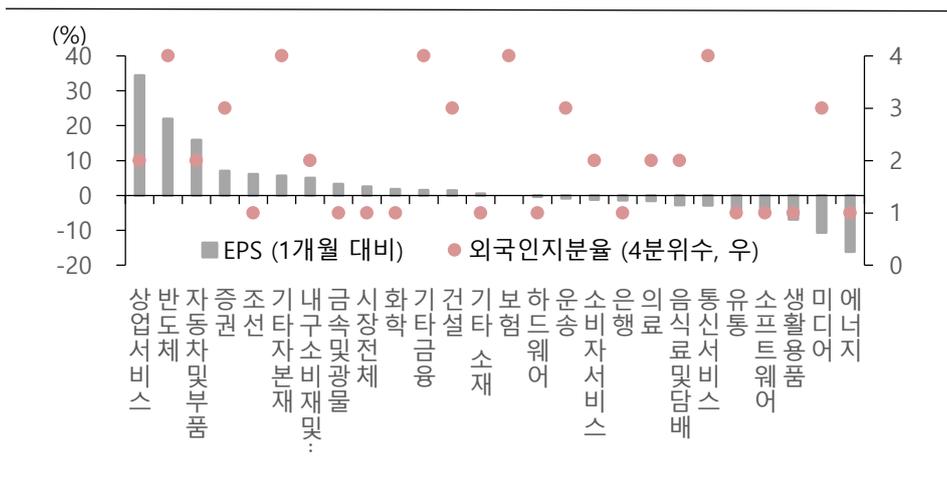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CI, 리딩투자증권 주: 글로벌 펀드플로우는 주간순유입 기준임

1 분기 어닝시즌을 통과하면서 2023 년 업종별 주당순이익의 상향조정 폭과 2015 년 이후 외국인지분율 흐름 상 현 수준이 어느 위치인 지를 4 분위 그룹 분류를 통해 파악한 결과, 이익상향 조정과 외국인지분율 상향이 동반된 업종으로는 <반도체, 기타자본재(지주사, 산업재), 기타금융> 등에서 뚜렷하게 발견됨

구체적인 종목군을 살펴보기 위해 외국인 관심주(20 일간 외국인순매수/시가총액 기준 상위그룹) 중 1 분기 어닝시즌을 거치면서 2023 년 ROE 전망의 상향조정과 적정주가 수정비율 상 상향조정이 우세한 기업들을 <그림 4>와 같이 추출했으니 참고하기 바람.

<그림 3> 국내 업종별 1 개월 대비 이익상향과 외국인지분율 수준



자료: Dataguide, 리딩투자증권

주: 외국인지분율은 2015 년 이후 수준을 4 분위 나타냄

<그림 4> 외국인 관심주 중 ROE 및 적정주가 상향비율 개선주

| 종목명 | ROE (1M Chg)(%) | 적정주가(상향-하향) /(전체) |
|-----------|--------------------|----------------------|
| 디오 | 29.8 | 0.5 |
| 호텔신라 | 27.4 | 0.7 |
| HD현대건설기계 | 26.2 | 1.0 |
| HD현대인프라코어 | 24.8 | 1.0 |
| 현대차 | 22.9 | 0.7 |
| 롯데정밀화학 | 22.7 | 0.0 |
| LG전자 | 15.5 | 0.2 |
| 하이브 | 13.6 | 0.8 |
| 삼성증권 | 11.5 | 0.2 |
| 한미약품 | 11.1 | 0.5 |
| 현대제철 | 10.4 | 0.2 |
| 풍산 | 10.2 | 0.5 |
| 클래시스 | 6.6 | 0.8 |
| 삼성엔지니어링 | 5.2 | 0.2 |
| 삼성전자 | 5.2 | 0.1 |
| JYP Ent. | 5.1 | 0.8 |
| OCI | 4.4 | 0.0 |
| 바텍 | 4.2 | 0.0 |
| 현대로템 | 2.8 | 0.6 |
| 에스에프에이 | 0.0 | 0.0 |

자료: Dataguide, 리딩투자증권

■ 결 론

- ▷ 1 분기 어닝시즌 중 나스닥 100 기업군은 감익사이클에 벗어나 이익 전망의 바닥통과 성공
 - ▷ 빅테크 기업군의 바닥통과는 국내 기업이익 전망에도 우호적임
 - : 국내 이익사이클은 이미 역사적 저점수준까지 충분한 하향조정으로 동조화 가능성 커짐
 - ▷ 국내외 이익동조화 시기는 글로벌 펀드의 순유출이 경감되거나, 신흥국에도 자금배분 관찰됨
 - ▷ 이익전망 및 외국인지분율 상 관심 업종: 반도체, 기타자본재(지주사, 산업재), 기타금융
- 주요 종목군은 <그림 4> 참조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복제,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